

클래식 명곡 산책 - 17 - 실내교향곡

글. 송주호 EBS IT운영부 선임

연주자가 열 명 이상으로 확대되면 일반적으로 ‘기악 앙상블’(instrumental ensemble) 혹은 그냥 ‘앙상블’이라고 부릅니다. 앙상블 규모가 더 크면 ‘대규모 앙상블’(large ensemble)이라고도 하죠. 이를 위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특별히 앙상블을 위한 교향곡, 즉 ‘실내교향곡’(chamber symphony)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10개가 넘는 악기가 사용된 작품들을 골라보았습니다.



음악 듣기
(bitly.kr/YacZj)

18세기에 나타난 ‘교향곡’이라는 장르는 서양음악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이르러 전통을 거부하는 경향은 교향곡을 박물관으로 가야 할 구습으로 내몰기까지 했지요. 그런데도 교향곡은 그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계속 작곡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symphony’ 즉 ‘모든 소리가 함께 울린다’는 어원적 의미에 착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향곡이 시도되었죠. 이러한 생각은 ‘교향곡’을 다시 작곡할 수 있는 명분을 세워주었고요, 교향곡은 실내악 규모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대규모 신작은 무대에 올리기 어려운 만큼, 앙상블을 위한 교향곡들이 유행처럼 만들어졌습니다.



Ensemble Connect / 출처 : carnegiehall.org

아르놀트 쇤베르크 (1874~1951) : 실내교향곡 1번 마장조, 작품번호 9 (1906)

Arnold Schönberg : Kammer-symphonie Nr. 1 E-dur, op. 9

아르놀트 쇤베르크는 오늘날 현대음악이 악명을 떨치게 만든 장본인이죠. 하지만 그는 열렬한 바그너 숭배자였으며 브람스 애호가였습니다. 아마추어 합창단을 지휘할 때는 브람스의 합창곡을 연주했고, <정화된 밤>(1899), <구레의 노래>(1901/11), <펠레아스와 멜리장드>(1903) 등 바그너의 영향이 짙게 느껴지는 작품들을 작곡했습니다.

그런데 <실내교향곡 1번>(1906)은 달랐습니다. <펠레아스와 멜리장드>의 성공 이후 발전시킨 자신의 개성적인 음악 언어를 집대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쇤베르크는 빈에서 작곡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하지만 초연 후 여전히 쇤베르크는 아웃사이더 작곡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작품성은 높이 인정받고 있으며, '실내교향곡'이라는 장르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작품입니다.

'실내교향곡'은 실내악으로 교향곡의 음악적 규모를 실현하는 동시에, 실내악적인 텍스처로 교향곡을 구성합니다. 쇤베르크의 <실내교향곡 1번>은 열 개의 관악기와 다섯 개의 현악기로 구성되어있고, 간결한 선율과 고도로 응축된 표현을 실내악적인 텍스처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를 충족합니다. 또한 소나타, 스케르초, 아디지오, 피날레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교향곡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무조성을 사용하기 전만큼 전통적인 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급격한 변화, 온음과 완전4도로 구성된 주제, 바그너적인 풍부한 화음 등 말기 낭만 특유의 일탈을 보여줍니다. 또한 악기들의 독특한 조합으로 공격적이면서 자극적인 음색을 만들었다는 것도 이 곡의 중요한 포인트죠. 리듬도 전체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고 긴장을 유지합니다. 마치 할 말은 많지만, 너무 바쁜 나머지 말할 여유가 없어서 설명이 꼬이는 모습과 유사하다고나 할까요?



아르놀트 쇤베르크 / 출처 : www.europeana.eu



벤저민 브리튼 / 출처 : wrti.org

벤저민 브리튼 (1913~1976) : 신포니에타, 작품번호 1 (1932)

Benjamin Britten : Sinfonietta, Op. 1

벤저민 브리튼은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오페라 <피터 그라임즈>와 위대한 걸작 <전쟁 레퀴엠> 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래가 아닌 지금의 우리를 위해 곡을 쓴다고 말했죠. 하지만 젊었을 때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음악들을 찾아다녔고,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왕립음악원의 지도교수였던 존 아일랜드의 방해 공작으로 유학을 떠나지 못했죠. 그래서 학생 시절이었던 18세에 작곡된 당찬 <신포니에타, Op. 1>(1932)은 무조음악도 아니고 표현주의적이지도 않은 어정쩡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점점 크레센도가 된 후 혼의 아르페지오가 우렁차게 울리는 시작 부분이 쇤베르크의 <실내교향곡 1번>을 연상시키는 하죠. 어쨌든 브리튼은 1932년 8월에 왕립음악원 학생들의 리허

설을 듣고는 일기장에 스스로 "나는 그런 끔찍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썼습니다. 브리튼은 당시 상당히 진척되어있었던 <이중협주곡>의 작곡을 그만둔 것을 보면, 이때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신포니에타>가 학생 시절 중 초연된 유일한 곡이 되었죠.

지금도 이 곡이 그렇게 이상하게 들릴까요? 혹시 당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연주한 것은 아닐까요? 소란스럽게 들릴 수 있겠지만, 고전적인 하모니와 감각적인 오케스트레이션은 분명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동감 있는 리듬과 함께 관과 현이 대결하는 구도로 극적인 긴장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죠. 또한 브리튼다운 음악적 제스처와 화음들 역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포니에타>는 5살부터 작곡을 해오던, 상당한 공력이 쌓인 작곡가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실망에도 브리튼은 이 곡에 기념비적인 ‘Op. 1’을 부여한 걸 보면, 애착이 컸던 것 같습니다. 1악장은 음정의 범위가 넓고 움직임이 많은 격렬한 음악이며, 2악장은 랩소디 풍의 느린 악장입니다. 빠른 중간 부분이 대조적이며, 마지막에 현악기의 고요한 아르페지오가 인상적입니다. 마지막 3악장은 타란텔라 무곡으로 6/8박자의 빠른 리듬이 쉬지 않고 연주되며 마지막에 강한 화음으로 마무리됩니다.

제오르제 에네스쿠 (1881~1955) : 12명의 기악독주자를 위한 실내교향곡, 작품번호 33 (1954)

George Enescu : Symphonie de chambre pour douze instrumentistes solistes, op. 33

루마니아에서 제오르제 에네스쿠의 입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1955년에 에네스쿠가 세상을 떠나자, 그가 태어난 ‘리베니’라는 지명은 ‘제오르제 에네스쿠’로 바뀌었으며,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관현악단인 ‘부쿠레슈티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같은 해에 ‘제오르제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나중에 루마니아의 제1 공항인 ‘바쿠우 국제공항’도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공항’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니, 고국에서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이 되죠?

에네스쿠의 음악은 그가 영향을 받았던 인상주의를 뛰어넘는 과감한 오케스트레이션과 화음, 버르토크에 비견되는 수준 높은 영감, 그리고 루마니아의 민속 음악에서 영향을 받은 생명력 있는 리듬 등 이들의 조합은 낯설면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의 <실내교향곡>은 에네스쿠 음악의 총정리이자, 쇤베르크의 <실내교향곡 1번>(1906)에 대한 오마주이기도 합니다. 모더니즘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그가 쇤베르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다소 뜻밖이지만, 이 곡은 악보상으로는 쇤베르크의 작품과 같은 마장조의 조성으로 표시되어있으면서도 증화음과 감화음, 반음계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조성 사이를 순간이동 하며 전체의 조성감을 흐트러뜨립니다. 또한 유니즌으로 혹은 대위적으로 진행하다가도 각기 제 갈 길을 가기도 하는데, 그야말로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곡은 모두 네 악장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체가 쉽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부분마다 솔로 악기를 지정하고 있어서 콘체르탄테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죠. 1악장은 발전부가 없는 소나타 형식으로, 플루트의 서정적인 첫 주제는 춤곡과 같은 생동감 있는 리듬을 품고 있습니다. 2악장은 주제와 변주곡으로, 반음계적인 스케르초 풍의 주제가 바순을 중심으로 제시됩니다. 느린 3악장은 트럼펫이 연주하는 스크리아빈 풍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주제가 4악장에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장조 으뜸화음이 등장하더니 황급히 곡을 마치죠. 조금 당혹스러운 마무리인데요, 6월에 심장마비를 겪은 에네스쿠는 이 곡을 빨리 마치지 않으면 미완성으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오르제 에네스쿠 / 출처 : mfa.org



윤이상(尹伊桑 1917~1995) : 실내교향곡 1번 (1987)

Isang Yun : Chamber Symphony I

윤이상은 한국 전통 음악의 이미지를 서양음악 기법으로 표현하여 진보적인 음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간접 혐의를 받고 고국에서 고초를 당한 뒤 독일로 돌아와 독일 국적을 취득한 이후 그의 음악은 변화를 보였습니다. 유럽인으로서의 유럽 전통이 그의 음악 깊숙이 자리했던 것이죠. 협주곡과 교향곡, 소나타 등의 고전 형식이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후반에 유럽 작곡가들이 신고전주의로 노선으로 갈아타던 유행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실내 교향곡 1번>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5번>이 완성된, 신고전주의가 정점에 이르렀던 1987년에 작곡되었습니다. ‘실내교향곡’이라는 제목은 쇤베르크와의 연관성을 뽐낼 수 없습니다. 윤이



윤이상 / 출처 : musik-journalismus.com © Hans Pölkow

상은 ‘실내교향곡’을 쇤베르크처럼 두 곡을 작곡했는데, 이 장르를 통해 진보적 작곡가의 신고전주의의 노선 변경을 상징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편성(2 오보에, 2 호른, 현악)이 옛 고전주의의 상징인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과 거의 같을 뿐만 아니라 조성도 같은 올림 바단조로 시작한다는 것은 의도된 계산일 것입니다. 혹시 윤이상은 자신의 과거의 음악과 공식적인 고별을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저명한 음악학자인 폴 그리피스스의 말처럼, 하이든이 <고별 교향곡>을 통해 에스테르하지에서 빈의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을 그린 것과 같이, 윤이상도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떠나고 23년이나 지난 2018년 3월에야 고향인 통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윤이상의 <실내 교향곡 1번>은 ‘가장 윤이상다운 곡’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곡기법은 ‘중심음(Haupttöne) 기법’이라는 것인데요, ‘중심음’이란 종묘제례악을 모델로 한 것으로, 한 음이 음악의 진행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길게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중심음은 한 개의 음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음의 집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음은 미분음 정도의 폭으로 어긋나기도 하고, 트레몰로나 꾸밈음, 글리산도 등을 타고 다른 음으로 비약적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화음보다는 수평적인 흐름, 즉 음 하나가 그리는 궤적과 그 궤적이 표현하는 제스처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렇게 진보적 음악계에서 활약했던 1960년대부터 자리 잡은 중심음 기법은 신고전주의 작곡가로 돌아섰던 이후의 전통적인 음악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넘실대는 바다와 같이 움직이는 현악은 거스를 수 없는 세파에 휩쓸리는 현실을 말하고 있다면, 따스한 호른의 화음은 아득히 전해지는 전설과 같이 꿈속의 이상향을 그립니다. 즉, 음악의 진행은 현에 의해 주도되고, 화성적인 측면은 호른에 의해 제시되죠. 하지만 두 대의 혼이 만들어내는 두 음의 화음은 어디로 떠나갈지 모르는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보에는 그 둘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하며, 마치 이생과 저생을 오가는 새와 노래와 같이 맴돌기도 합니다. 🎧